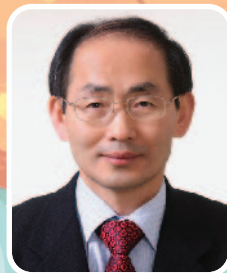


# 탈산업사회에 맞는 지역정책을 추진하자

2020년 성공적 지방 발전의 미래를 꿈꾸며

| 황희연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소득수준의 향상은 사회변화를 동반한다.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5천 달러에 이르면서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분출하였고, 1만 달러 시대에는 환경오염·사회정의 문제 등을 비롯한 경제외적인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는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분권화의 거센 바람 속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의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었고, 행정 주도 정책의 상당부분이 거버넌스 체제나 민간에게 넘어가고 있다. 성장과 효율성 위주로 추진해 왔던 많은 정책도 벽에 부딪히면서 보전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근자에 들어 국민의 관심도도 바뀌었다. 물질 개발에 대한 수요가 문화적 욕구로 대체되고 환경·교육·일자리 창출이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선진사회의 사례를 볼 때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소위 탈산업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정책추진

사회적 환경이 바뀌면 이에 따라 지역정책도 변해야 한다. 그간 물질 환경정비 위주의 정책사업은 역사·문화자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과 접목되어야 하고, 사회기업·지역커뮤니티·사회교육·복지시설 등 사회적 자본 형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지역정책은 지구환경변화 등에 대비한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해야 한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과 자전거·보행 중심의 녹색교통체계로 바꾸고, 화석에너지 중심의 공급체계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체계로 바꾸는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처별로 시행하는 독자적인 정책사업 형태 또한 바뀌어야 한다. 유사한 사업을 여러 중앙부처가 이중삼중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기획·시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각 지자체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관행도 변해야 한다. 공동사업 혹은 협력사업으로 인접 지자체와 함께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열린 정책이 요구되며, 패키지 사업이나 네트워크 체계의 구축을 위해 지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인당 연간 국민소득 2만 달러 사회에서 지역정책을 행정이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나 지역거버넌스·민간기업 등이 주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체제에 머물러야 하며,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전문가·NGO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정책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우리가 꿈꾸는 미래 지역정책은?

우리 사회는 탈산업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대량생산체제를 근간으로 하였던 산업사회에서는 보편성이 중요시되고, 지방보다 중앙이, 분산보다 집중이 강조되었다. 그 시대의 지역정책은 종합성과 객관성, 기술적 합리성을 도모하였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추구하였다.

다품종소량생산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탈산업사회에서는 다양성·차이·지방성·분산 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정책도 이에 맞춰 문화의 다양성, 여러 요소의 복합, 의사소통의 합리성 및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조개편적 지역정책은 생활환경 개선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신개발 중심 정책은 지역의 성장을 관리하고 정비·복원하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한다. 행정구역 전체를 계획단위로 하던 계획의 범역도 한축에서는 광역단위로, 다른 축에서는 마을규모의 세포단위로 확장과 세분화를 동시에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가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정책의 주체 또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앞서가는 지역은 아날로그적 자산을 디지털시대의 기술에 접목시키고, 다자인을 지역경쟁력 요소로 활용하며, 과거와 현재, 패스트와 슬로우, 테크놀로지와 문화를 융합하여 독특한 창의적 지역을 만들어, 그것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지역정책 방향은 탈산업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새로운 경쟁력 요소를 담은 것이어야 할 줄 안다.